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

남원시보건소,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 평가서 4년 연속 선정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가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평가'에서 4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 추진결과 및 우수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했으며, 표창은 오는 6월 30일 개최되는 제18회 지방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성과대회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남원시보건소는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연속 통합건강증진사업 종합부문 최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으며, 특히 올해는 중점 추진 사업 영역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사업' 부문에서도 우수기관 표창을 거머

쥐며 뜻깊은 '2관왕'의 쾌거를 안았다. 이로써 남원시는 다년간 축적된 종합적인 보건사업 운영 능력은 물론, 최신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특화 사업 역량까지 다각도로 인정받게 됐으며, 사업 계획부터 평가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정기적인 중간 모니터링과 환류 체계를 구축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보건소 내·외부 자원 간 유기적인 소통과 협력체계를 구축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남원의료원, 남원소방서, 우체국을 비롯해 삼성전자, 한국음료 등 관내 기업·기관과 협력하여 찾아가는 금연클리닉과 직장인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생활터 중심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노인복지관·노인대학과 연계한 어르신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어르신의 건강관리 접근성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남원시체육회,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등과 협력해 걷기 및 신체활동 프로그램의 전문성과 참여도를 높이고, 통합돌봄과 가족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건강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 통합건강관리 체계 구축에 힘써왔다.

한용재 보건소장은 "4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은 시민과 지역사회, 유관기관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건강증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시민 건강증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접수율 96%

임실군, 29일까지 신청 접수

임실군이 쌀 수급 안정과 농가 소득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2026년 전략작물직불제 하계작물' 신청 접수가 오는 29일 마감을 앞두고 있다.

군에 따르면 현재 관내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전체 접수율은 96%를 기록하고 있으며, 아직 신청하지 못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인 서둘러 기간 내 반드시 신청을 완료해야 직불금 혜택을

을 받을 수 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논에 벼 대신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해 쌀 과잉 생산을 완화하고 식량자급률 향상과 농가 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이다.

신청 대상은 농업경영체 정보를 등록 완료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 면적이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온라인 시스템

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하계작물 신청 대상 품목은 두류와 가루쌀, 옥수수, 깨, 하계 조사료를 비롯해 알팔파, 수수, 울무, 수급조절용 벼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5월 29일 까지다.

특히, 올해는 농가 경영 부담 완화와 전략작물 재배 확대를 위해 지원 단가 인상과 신규 품목 확대가 이뤄지면서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군은 신청 농지에 대해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한 뒤,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을 농지 면적에 가장 큰 소재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농업e지' 온라인 시스템

남원시, 27~29일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 참가

남원시가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리는 '2026 스마트팜 코리아' 박람회에 참가해 남원시의 귀농·귀촌 정책 홍보에 나선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스마트 농업 시대를 선도하는 남원시의 농업 인프라를 알리는 한편, 영농 준비부터 지역

융합까지 아우르는 정착 시스템을 다각도로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이 일정 기간 머무르며 농촌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임시 거주 시설 운영부터, 현장 중심의 생생한 영농 실습 프로그램, 그리고 지역 주민과의 따뜻한 상생 화합을 이끄는 동아리 및 재능기부

단 지원까지 남원시만의 정착 케어 서비스를 상세히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귀농·귀촌을 꿈꾸지만 막연한 두려움에 망설였던 귀농 희망자들을 위해, 농촌에 먼저 안정적으로 정착한 베테랑 귀농인들이 직접 상담을 진행해 작물 선정부터 토지 매입, 주거지 마련 등 초기 정착 단계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1:1 맞춤형으로 진행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의료원, 전북권역 네트워크 감염관리 현장견학·세미나 가져

남원의료원(원장 오진규)은 지난 22일, 전북권역 9개 중소·요양병원 감염관리 담당자를 초청, 4층 제1교육실에서 '2026년 전북권역 네트워크 감염관리 현장견학·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북특별자치도 감염병관리지원단, 전북대학교병원, 남원의료원과 공동 주관했으며, 지역사회에서 '2026년 전북권역 네트워크 감염관리 체계 강화와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강남성심병원 감염내

과 이재갑 교수가 '중소·요양병원의 감염관리-지침과 현장사이에서'를 주제로 강의해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대응 전략을 공유했으며, 남원의료원 감염병센터는 사례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현장 감염관리 실무자들의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건강 취약계층 건강관리 강화

순창군, 9월까지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집중 추진

순창군이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강화한다.

순창군은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독거노인과 만성질환자 등 건강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방문건강관리 서비스를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기후변화로 여름철 폭염이 장기간·고강도화되면서 열사병 등 건강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령층과 만성질환자 등은 상대적으로 안전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순창군은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을 중심으로 대상 가정을 직접 방문해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폭염 대응 행동요령과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는 등 선제적인 건강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폭염특보 발효 시에는 전화 안부 확인과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건강 모니터링을 수시로 실시하고 어지럼증과 탈수 증상 등 건강 이상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원한 환경 유지 △충분한 수분 섭취 △낮 시간대 외출 자제 △스킨 수시 확인 △무더위 쉼터 이용 등 폭염 대응 행동요령도 함께 안내한다.

또 지역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폭염 대비 건강관리 수칙과 열사병 예방교육도 진행한다. 교육에서는 두통과 어지러움, 근육경련 등 주요 열사병 증상과 함께 응급조치법, 119 신고가 필요한 상황 등 실제 상황에 도움이 되는 대응 요령이 안내될 예정이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 의료취약계층 '찾아가는 조기 치매검진' 추진

순창군이 의료급여 특화사업의 일환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한 '찾아가는 조기 치매검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4월 말 기준 관내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총 1,142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조기 검진 대상인 60~7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는 387명이다.

순창읍 거주 수급권자 114명은 우선 보건의로원 치매안심센터 방문 검진을 안내하고 있으며, 나머지 10개 면 지역에서는 기존 치매 진단자와 올해 치매검진을 완료한 대상자를 제외한 236명을 대상으로 검진을 진행 중이다.

검진은 순창군청 의료급여관리사와 보건의로원 치매예방팀 전문인력이 2

인 1조를 구성해 대상자의 가정과 마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현장에서는 1대1 맞춤형 치매 선별검사(CIST)를 실시하며, 검사 결과 인지 저하 의심 증상이 확인된 대상자는 치매안심센터와 연계해 정밀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 치매 확진 시에는 치매환자 등록과 함께 대상자별 맞춤형 서비스도 연계해 지속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검진은 지난 18일부터 오는 6월 5일까지 약 3주간 일정으로 진행되며, 관내 10개 면 지역을 순차적으로 방문한다. /순창=이양원 기자

지역 소식 등

남원농기센터,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 운영

남원시 농업기술센터는 스마트 농업 교육 운영을 통해 미래농업을 이끌 스마트농업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고 있다.

특히 남원명품농업대학과 연계해 운영 중인 스마트팜 특별반은 이론교육과 현장실습을 병행한 총 500시간 규모의 장기 교육과정으로, 스마트팜의 원리와 구조, 환경 제어 기초, 작물 생육 최적화 전략 등을 교육하고 있다.

상반기에 배운 스마트팜 경영·수경재배 배양액 기초 등 이론교육 내용을 실제 농업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실습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며, 현장 중심의 스마트농업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올해 기초반은 오는 7월 1일부터 현장실습교육을 운영할 예정으로, 5월 14일부터 6월 5일까지 교육생 현장실습 지도를 담당할 선도농가를 모집한다.

/남원=김기두 기자

임실군, 매립장 현장 근로자 대상 안전보건교육 실시

임실군은 최근, 농어촌 종합폐기물 처리시설(매립장)에서 근무하는 20여명의 현장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맞춤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매립장 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근로자들의 건강보호 및 안전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서부 중심의 형식적인 교육에서 벗어나, 실무를 총괄하는 관리자가 직접 교육을 주도하여 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응방안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2시간 동안 진행했다.

주요 교육 내용은 매립장 내 작업 안전 수칙, 하절기 대비 열사병 예방 및 보건 관리, 생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의 올바른 보호구 착용법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폐기물 처리현장의 어려움을 공유하고, 현장 근로자들의 고충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며 소통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와 함께 군은 총 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매립장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한 4건의 시설 안전 공사를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임실=전충영 기자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N 치즈

별기에 출신 지정항 신부(Didier l'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N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N 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